

HI Economy

미국의 국내 투자 포지션과 북핵 리스크

■ 북핵 블랙홀에 빠진 국내 금융시장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사가 9일자 보고서를 통해 국내 CDS 프리미엄을 강조한 것처럼 국내 CDS 프리미엄이 이를 연속 급등하였다. 10일 기준 국내 CDS 프리미엄은 63.074bp로 전고점(61.643)를 상회하였다. 미국과 북한의 강경 발언이 지속되면서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CDS 프리미엄 급등과 함께 원/달러 환율 역시 급등세를 이어갔다. 9일 10.1원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10일에도 6.8원 급등하면서 1,140원대에 진입했다. 참고로 10일 원/달러 환율 증가는 1,142원으로 마감했다.

국내 금융시장 불안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높다. 우선 북한측이 밝히고 있듯이 광 타격 시나리오를 8월 중순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지속될 수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도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한미연합으로 '2017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고 9월 9일은 북한 건국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당분간 유지될 공산이 높다는 판단이다.

미북간 갈등 해소를 위한 뚜렷한 대안 혹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음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듯이 중국의 적극적 중재와 이로 인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시그널이 가시화되어야 현 긴장국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율 급등은 일부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탈을 촉발시킬 수 있어

북핵 리스크 우려와 이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 현상이 일부 외국인 자금의 차익 실현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로화 강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유럽계 자금, 소위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고로 16년 초 이후 원/달러 환율대별 외국인 매수 추이를 보면 1,130~1,150원대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시 외국인 자금의 매도 압력을 높일 수 있다.

Chief Economist

박상현

(2122-9196)

shpark@hi-ib.com

Economist

진용재

(2122-9206)

yj@hi-ib.com

■ 미국의 국내 투자 포지션 VS 군사적 충돌 리스크

금융시장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는 군사적 충돌 리스크가 고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핵 리스크가 군사적 충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 국내에 투자된 미국계 자금 규모는 최소 3,00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당사는 추정하고 있다. 당사의 추정치에 부동산 가치, 파생상품 등 기타 비즈니스를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북한 군사적 충돌은 중국 및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 금융시장이나 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단순하게 한중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금액은 15조 달러로 미국 GDP 수준에 버금가는 규모로 전세계 GDP규모의 약 20%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즉 자칫 군사적 충돌이 가져올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1> 16년초 이후 원/달러 환율대별 외국인 순매수/도 규모

원/달러		2016년 이후 외국인 순매수
이상	미만	10억원
1080	1090	58.5
1090	1100	622.1
1100	1110	1777.8
1110	1120	522.1
1120	1130	747.0
1130	1140	5788.5
1140	1150	4196.5
1150	1160	4587.4
1160	1170	1252.0
1170	1180	51.5
1180	1190	-137.0
1190	1200	1381.1
1200	1210	743.2
1210	1220	-1588.2
1220	1230	494.4
1230	1240	553.6

<그림 2> 한중일 주요 시장규모

		한중일 (10억달러)	전세계 GDP대비 %
16년 기준	GDP	17,568	23.3
17.7월말 기준	주식시장 시가총액	15,089	20.0
16.12월 기준	국채시장 규모	12,790	17.0
16년 기준	수입 규모	2,640	3.5

<그림 3> 미국계 자본의 국내 투자 포지션 추정

(단위: 10억 달러)

	직접투자 ¹⁾	주식투자 ²⁾	채권투자 ^{3,4)}	토지소유 ⁵⁾	합계
미국	62.7	221.4	11.6	11.0	306.8
전체 외국인	266.8	528.9	91.8	28.6	916.1

주: 1) FDI규모는 95~16년 누적액

2) 주식투자액은 17년 6월말 기준(환율 1,130원 적용)

3) 채권투자액은 17년 6월말 기준(환율 1,130원 적용)

4) 미국 채권투자액은 17년 6월말 미주지역 채권투자액 기준(환율 1,130원 적용)

5) 16년말 공시지가 기준

	비중(%)
국내 외국인 총투자액/전세계 GDP대비	1.2
미국의 한국 투자액/미국 GDP대비	1.6

자료: Bloomberg, IMF, 국토교통부, 하이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박상현, 진용재)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역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